

Annotated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86~1987

저술소개, 1986~1987 년

편집자주 : 본 호에 실린 저술소개는 1986년 7월~1987년 6월 사이에 발간된 전국 각 대학교 및 대학, 대학교부설 연구소, 기타 사회과학학회 및 민간연구소의 논문집 중에서 한국의 인구 및 발전 문제에 관계되는 논문만을 발췌 수록한 것임.

Editor' note : This bibliography lists articles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which appeared during July 1986~June 1987 in various journals published by universities, colleges and institutes in Korea.

1. Population Growth and Policy 人口成長과 人口政策

로서 상당히 높았다가 점차 그 비중이 약해지고 있다.

1767. 崔仁鉉, 卞僖榮, “지역별 人口分布에 관한 고찰 : 1966~1985” (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6 권 제 1 호, 한국 인구보건연구원, 1986. 7, pp. 3~23.

Cheo Ehn-Hyun, Byun Yong-Chan, “An Overview of Population Growth and Redistribution in Korea : 1966~1985”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6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July 1986, pp. 3~23.

본 논문은 1966~1985년 사이의 인구성장과 분포에 관한 몇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된 자료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행하는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결과 보고서이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기간 중 서울, 부산 및 경기지역은 인구 규모 뿐만 아니라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점차 특정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최근에 올수록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3) 분석기간 중 인구재분포비율은 1960년대 후반의 5.9%에서 1980년대 초반의 4.0%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 시기별 인구증가량에 대한 사회증가 요인의 비중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초기에는 각각 83%, 75%

1768. 金南一, “韓國 死亡率의 變動과 構造分析” (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6. 7, pp. 14~31.

Kim Nam-II, “Trends and Age-Sex Patterns of Mortality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uly 1986, pp. 14~31.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사망율 추정에는 기존의 직접 혹은 간접적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申告行態, 申告資料上的 誤差의 종류와 그 크기 등을 추구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 즉, 誤差修正方法에 의해 수정보완된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사망율의 추이와 그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資料는 1953년부터 1982년까지의 出生과 死亡 申告 자료를 기초로 하고, 그 외에 같은 기간중의 人口센서스자료 및 특별조사자료 등 모든 가능한 자료를 동원하고 있다.

1769. 李準協, “우리나라의 각종 出生力指標에 의한 出生力推移에 관한 分析” (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67~78

Lee Jun-Hyup,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Fertility Rates According to Various Fertility Indices in Korea” (in Korean with Eng-

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67~7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人口靜態統計와 人口動態統計를 利用해서 연도별 期間出産力과 完結出産力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 수준이 변화할 때 그 변화의 기점이 시대적 구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가의 여부도 고찰해 보고 있다. 1970년 이후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197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母의 연령별 출산패턴이 30代에서 20代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多産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70. 吳英姬, "우리나라 有配偶婦女의 人工妊娠中節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42~52.

Oh Young-Hie, "A Study on the Induced Abortion Behavior of Currently Married Women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42~52.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우리나라 有配偶婦女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1)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을 파악하고, 2)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일반사항을 살펴보고, 3) 인공임신중절이 出産力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8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의 자료이며, 이 중에서도 婦人調査標에 있는 15~44세 有配偶婦女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1771. 김태헌, "한국에 있어서 嬰兒 및 幼兒 死亡의 결정요인"(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93~107.

Kim Tai-Hun, "The Determinants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in Korea: 1955~1973" (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93~107.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mother's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infant mortality, and maternal age and number of rooms used are the main determi-

nants of child mortality. Previous birth also affects infant mortality and child mortality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For both infant and child mortality previous birth interval and number of rooms used are the most general factors in urban areas; previous birth interval and mother's education in rural areas. Infant mortality i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by sex of the child and the number of rooms used in urban areas, and by birth order in rural areas. Significant determinants of child mortality are birth order in urban areas but mother's education in rural areas. Thus demographic factors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for child mortality in rural areas and for child mortality in urban areas; in contrast, socioeconomic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fant mortality in urban areas and in child mortality in rural areas.

1772. 尹榮希, "우리나라 死亡水準의 推移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53~66.

Yoon Young-Hee,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s of Mortality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53~66.

본 연구는 사망수준의 변동과 그 구성요소의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 사망신고에 의해 작성·발표된 사망원인 통계를 기초로, 지금까지 많은 조사연구에 사용되었던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망수준과 主要要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망수준의 변동에 따른 그 인구학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에 있어서의 전환기를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 人口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추이와 더불어 완만하고 착실한 改善期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다.

1773. 李時伯, 李任田, "韓國婦人의 妊娠과 出産의 季節的變化에 關한 分析"(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1~12.

Lee Sea Baick, Lee Im-Jeon, "Seasonal Variations of Pregnancies and Births in Korea" (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1~12.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의 발생시기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年을 통해 균등히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月 또는 季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國家 또는 民族의 社會·文化 및 宗教的인 영향으로 해석된다는 인식하에서, 한국 부인들의 임신·출산 행위도 社會·文化的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첫째, 그 발생시기의 週期성을 파악하고 둘째, 都市·農村間의 변화차이를 비교하며 셋째, 임신과 출산의 발생시기를 분석하고 있다.

1774. 劉林淑, 金初江, 弘世權, “韓國人의 死亡構造變化에 대한 考察”(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79~92.

You Im-Sook, Kim Cho-kang, Kong Sae-Kwon, “A Study on Changes of Korean Mortality Pattern, 1930~1980”(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79~9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망구조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기존 人口센서스 자료와 기타 사망률 연구 결과를 자료로 하여 1932~1980년까지 50년간의 사망구조 및 사망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회귀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死因을 규명함으로써 보건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보건문제를 종래의 嬰幼兒保健 및 傳染性 질환문제에서 고령층의 만성 退行性 疾患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1775. 金斗燮, “한국 부인의 경제활동경험과 출산력”(영문),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회보 제 15 권,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86, pp. 19~30.

Kim Doo-Sub, “Working Experience of Married Woman and Fertility in Korea”(in English), *Bulletin* Vol. XV,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1986, pp. 19~30.

Based on data from the 1974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working experience of married woman on fertility in Korea. Using techniques of MCA and ANOVA, fertility differentials with respect to woman's working experience, place of working, occupation,

working status, and household structure are investigated. Findings suggest that working experience of woman imposes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when current age of wife, age of wife at first marriage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couple are controlled. However, farmers and family workers are found to have higher fertility than those who have never worked. Considering the nature of working, the hypothesis of maternal role incompatibility cannot be applied to them, and working itself does not facilitate the low fertility oriented ideas. It is found that women living with parents or grandparents tend to have high fertility in general. However, contrary to our expectation, household structure does not intervene the negative effect of woman's working experience on fertility.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1776. 金益基, “한국의 도시-농촌간 출산행위의 차이: 다단계 접근을 위한 예비적 분석”(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회보 제 15 권,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86, pp. 1~18.

Kim Ik-Ki, “Urban-Rural Differentials in Fertility Behavior in Korea: Preliminary Analysis for Multilevel Approach”(in English), *Bulletin* Vol. XV,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1986, pp. 1~18.

This paper describes the preliminary phase of the analysis of fertility behavior in Korea prior to a multilevel analysis. The basic reason for the study of urban-rural differentials in the fertility behavior as a preliminary phase is to treat social contexts, reflecting location along a traditional-transitional continuum. This paper thus discusses for urban and rural areas,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micro models. It evaluates the variables which show different effects in urban and rural areas for age at first birth (AFB), early fertility (EF), and later fertility (LF), structural equations. As a result, some of the micro variables were found to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effects on fertility-related behavior in urban and rural areas.

1777. 梁在謨, “우리나라 人口政策의 綜合分析”(국

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6. 7, pp. 1~13.

Yang Jae-Mo, "Chronological Review of Korean Population Policy" (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uly 1986, pp. 1~13.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전개되어온 우리나라 人口政策 및 施策發展過程을 연대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인구정책들을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출산력 저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요인들 즉, 결혼연령, 피임 또는 불임, 인공임신중절, 교육수준, 경제발전, 사망율, 도시화, 공업화, 여성의 지위와 취업기회, 노후생활보장과 상숙제도, 매스컴의 발달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고 있다.

1778. 安啓春, "開發途上國家들의 人口政策에 관한 比較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6. 7, pp. 54~68.

Ahan kye-Choon, "A Comparative Study on Population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uly 1986, pp. 54~68.

본 研究는 출산조절을 통하여 인구성장을 억제 하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개발도상의 나라들 가운데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고 용이한 나라들을 골라 그들의 出生調節政策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시아와 중남미 대륙의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出生調節政策을 매우 광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신을 방지하려는 데에 초점을 둔 가족계획사업은 물론, 出生을 방지하려는 인공임신중절, 이들을 장려하려는 사회적 지원정책, 出生力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가지 法的 및 制度的 措置 등이 모두 출산조절정책에 포함된다.

1779. 조남훈, "인구억제정책의 현황과 向後方向"(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6권 제 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7, pp. 132~152.

Cho Nam-Ho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in Korea"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6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July 1986, pp. 132~152.

As a sixth five-year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87~1991) program, the government set a demographic target to reduce the annual growth rate of population for the to 1.0 percent by 1993. To achieve this difficult task, the author suggests the following strategies that strengthen the current population policy. (1) The current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need to be strengthened. The current social support policy measures and IE & C activities. (2) The emphasis on two child family be modified to encourage one child family. (3)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e integrated with health and medical programs. (4) Population education be strengthened.

2. Migration and Urbanization

人口移動과 都市化

1780. 남기창, "人口移動에 의한 지역학산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6집,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pp. 307~334.

Nam Ki-Chang, "A Study on the Regional Diffusion by the Population Migration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ocial Science Review* Vol. 6, Chungju Univ., Chungju, Korea, 1987, pp. 307~334.

본 논문의 목적은 1)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의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2) 우리나라 도시인구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3) 농촌에서 도시로 이입하는 이입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며, 4)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계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도시는 일차적으로 인구의 과도집중에서 형성된다 할지라도 도시 자체의 여러가지 특질에서 오는 주택문제, 실업자문제, 교통난, 도시계획, 공해문제 등은 1) 도시의 발전과정, 2) 도시사회의 구조 및 제도, 3) 도시사회의 인간관계 등 도시사회의 생태학적 내지 도시사회의 기능론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도시발전의 미래상이 계획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1781. 朴柱文, 李時伯, "韓國의 都市人口集中度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6. 7, pp. 69~88.

Park Ju-Moon, Lee Sea-Baick, "A Study

on the Urba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uly 1986, pp. 69~88.

본 연구의 목적은 1966년부터 1980년까지 실시된 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10개 시·道廳所在地를 대상으로 인구집중도 및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1) 인구가동의 양적 변화 및 인구규모, 인구구조별 시도인구집중을 고찰하고, 2) 1966년, 1970년, 1980년도의 도시인구집중도를 계산하여 이를 분석하고, 3) 서울과 他도시의 인구집중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도시화 정도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782. 崔鎮昊, "人口分散 및 移動의 特性과 展望" (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6. 7, pp. 32~40.

Choi Jin-Ho, "Characteristics of and Prospect for Population Distribution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uly 1986, pp. 32~40.

본고는 급속한 都市化와 産業化로 인하여 초래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농촌지역의 인구과소라는 人口分布의 불균형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1960년부터 85년까지의 우리나라의 人口分布變化의 특징을 개관하고 그 동안 시행되어온 人口分散 施策의 成果를 평가한 후 앞으로의 인구분산전망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783. 金亨俊, "首都圈 人口分散 政策의 評價" (국문 및 영문요약), 국토연구 제 6집, 국토개발연구원, 1986. 12, pp. 115~138.

Kim Hyung-Joon, "An Evaluation on Policies of Population Decentralization from Seoul"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V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oul, Korea, Dec. 1986, pp. 115~138.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부문별 시책 중 교육시책이 수도권 인구분산에 미친 영향을 다음의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첫째, 60년대 이후 인구 및 교육기능과 관련하여 수도권

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그 동안 교육시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고찰하여 그 중 많이 제안되었던 시책들을 확인하고, 또한 현재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시책도 파악하며 셋째, 이러한 시책이 수도권 인구분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成案된 시책들의 시행여부와 시행되지 않은 시책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의 방향설정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784. 金昌碩, "都市魅力도와 人口移動" (영문 및 국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6. 7, pp. 89~100.

Kim Chang-Seok, "Perception of City Attractiveness and Internal Migration in Korea"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uly 1986, pp. 89~100.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the city-ward migration in Korea in relation to city attractiveness, via a behavioral geographical approach. The study shows that the continuous massive flow of migration into the Capital Region is partly explained by defects in the past population redistribution which neglected the behavioral aspect of city-ward mig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formulated policy guide-lines for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Korea.

1785. 李喜演, "經濟發展과 人口移動: 政策의 觀點에서" (영문 및 국문요약), 학술지 제 31집, 건국대학교, 1987. 5, pp. 327~354.

Lee Hee-Yeon, "Economic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y Perspectives"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Vol. 31, Konkuk Univ., Seoul, Korea, 1987. 5, pp. 327~345.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independent proces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igration from 1960 to 1985. Attention is directed to the processe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country as a whol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d industrial development and massive migration stream from peripheral rural areas to metropolitan area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demographic transition. Specifically the paper tries to examine whether the trend of population

movement are connected with government policies and what are the main effect of these policies.

1786. 金住彦, “都市化에 따른 도시계획의 接近方法” (국문), 새마을 연구논집 제 2집, 한남대 새마을 연구소, 1987, pp. 185~199.

Kim Joo-On, “An Approach to Urban Planning in Urbanization” (in Korean), *Saemaul Research Review* Vol. 2, Saemaul Research Institute, Hannam Univ., Chunchun, Korea, 1987, pp. 185~199.

본 논문에서는 人口를 비롯한 도시화의 주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도시화의 과정과 문제점을 살피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의 기능과 영역, 과정,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도시화를 다루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에 중점을 두고 특정한 상황의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즉 인간의 복지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에 있는 것이며 이는 도시계획의 근거가 인간위주의 철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도시지역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787. 朴慶九, “貧困文化의 存在有無에 관한 考察”(국문), 사회과학논총 제 4집,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73~89.

Park Kyung-Ku, “A Study on Poverty Culture in Korea” (in Korea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 No. 1,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imyung Univ., Taegu, Korea, 1986, pp. 73~89.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貧困文化가 존재하는가 하는 가설검증의 성격을 띤 것이다. 이를 위해 貧困文化論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서 貧困集團地域에 대한 설문조사와 非形式面接을 병행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제외한 가족관계의 특성, 개인의 태도, 사회생활의 특성에서는 貧困文化의 특성이 뚜렷히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빈곤문화 집단지역은 하나의 下位集團으로서 존재할 뿐이지 下位文化로서의 貧困文化를 가진 집단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본 조사연구의 지역적 限界, 조사방법의 차이에 의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1788. 金沈植, “서울시 空文構造 分析: 人口 및 雇傭 分布를 중심으로”(국문), 사회과학 제 26집,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163~193.

Kim Kwang-Jick, “An Analysis of Space

Structure: A Case Study of Seoul City” (in Korean), *Social Science* Vol. 26,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Seongguinkwan Univ., Seoul, Korea, 1986, pp. 163~193.

본 연구는 1) 도시구성요소들의 분포특성을 통계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하고, 2) 이들 측정기법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인구와 고용의 분포 특성을 공간적·시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각 기법이 갖는 유용성, 안정성, 일관성을 검증하며, 3) 측정결과를 장래의 서울시 도시구조개편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오던 기능분산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와 고용의 유기적인 공간분포를 통해 다핵도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1) 인구, 고용 등 도시구성요소들의 공간적 분포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2) 지금의 도시개발정책을 수정하여 기존의 도심에 고용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며, 3) 用途地域區制 등 규제정책을 개선·강화하여 주거나 각종 기능의 입지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789. 申棟環, “都市空間 構造의 變化에 관한 考察”(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12집,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1986. 11, pp. 551~563.

Shin Hai-Kyung, “A Review o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of Urban A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Bulletin of the Institute for Humanistic Science* Vol. VII, Institute for Humanistic Science, Inha Univ., Incheon, Korea, 1986. 11, pp. 551~563.

본 논문에서는 우리에게 앞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된 외국의 경우, 분산화와 그에 따른 도시외곽에서의 지리적 변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분산화와 郊外化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있다. 본 고찰에 따르면 도시의 분산화는 필연적으로 여러 갈등과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는데, 경작용 토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개발이라든가 작은 마을이 대도시권으로 병합되는 것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 도심기능의 분산없이 주거지만의 분산이 가져오는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790. 洪慶姬, “韓國의 도시화—제 4부: 人口面으로 본 1970 년대의 都市化”(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42집, 경북대학교, 1986. 12, pp. 65~94.

Hong Kyung-Hi, “Urbanization in Korea,

1970~1980"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Vol. 42, Kyungpook National Univ., Taegu, Korea, 1986. 12, pp. 65~94.

本 橋는 1970 년대의 인구도시집중의 과정을 분석하고 此期 도시화의 특색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급적 1970 년대의 도시화의 과정을 그 前期(1960~1970) 및 선진국 후진국과 비교하고 있다. 특히 1970 년대는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에 혁명을 가져왔던 시기인데, 이와 같은 농촌의 조건의 개선이 토지에의 인구의 押出力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또 1970 년대의 도시화와 1960 년대부터 계속되어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개발사업과 도시화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여기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주로 1970, 1980 년의 대한민국 인구주택 국제조사 보고서이다.

3. Family 家族

1791. 신호식, 류점숙, "都市 女性의 가족 倫理意識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31 집, 전남대학교, 1986. 12, pp. 1~30.

Shin Hyo-Shick, Yoo Jom-Sook, "A Study on the Family Ethics Consciousness of the Urban Wome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Collection* Vol. 31, Chonnam Nat'l Univ., Kwangju, Korea, 1986. 12, pp. 1~30.

본 연구는 오랜 전통가치와의 갈등속에서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는 가족윤리관에 대한 것을 결혼 혹은 가족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사고하는 시기에 있는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족윤리관의 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전진하고 발전하는 가족건설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가족윤리관은 필자가 작성한 설문지에 의해 측정되었고, 조사대상은 光州市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600 명이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구하고, 연구문제의 해설을 위해서는 T검증, F검증, Person Corr., 중회귀 분석을 하고 있다.

1792. 金桂三, "現代 家族과 老人問題에 관한 고찰"(국문), 논문집 제 13 집, 경남대학교, 1986. 12, pp. 499~527.

Kim Gye-Sam, "A Study on Modern Family and Aged Man"(in Korean), *Collection of*

Theses Vol. 13, pp. 499~527.

본 연구는 老人人口가 전체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가족과의 관계에서 노인의 생활양식을 분석하고 노인의 현대사회에서의 지위역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필자는 전통적 농경사회가 근대산업사회로 변함에 따라 노년층은 친족과 직업과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지위는 낮아지고 사회의 주요활동에서 제거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노인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별거형태와 배우자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

1793. 金英姬, "性役割 社會化에 관한 文獻의 探索——家庭環境變因을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院友論總 제 4 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86. 8, pp. 179~207.

Kim Young-Hee, "A Literature Review on Gender Role Socioliza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Student Association* Vol. IV, Graduate School Student Associ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6. 8, pp. 179~20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한 자아성장과 적응을 돕기 위해 성인의 행동양식과 성격발달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성차를 기초로,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정신분석학적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을 살펴보고, 아울러 아동이 올바른 성역할 개념 및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도를 위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가정환경변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性別화된 여자·남자는 그들의 성격형성과 역할 수행의 측면에서 性正體感과 일치하는 데 많은 갈등을 일으켜 부적응을 초래하므로, 여자·남자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기 보다는 양성 모두의 본질적인 역할을 인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1794. 河相洛, "老年生活實態와 問題點"(국문), 社會福祉 제 33 권 제 1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봄, pp. 61~95.

Ha Sang-Nak, "Current Status, Role and Problems of the Aged in Korea"(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3 No. 1, Korea Nat'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Spring 1987, pp. 61~95.

우리 사회의 공업화, 도시화 停年制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老人問題는 사회적·경제적·文化的으로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실한 상태여서 문헌이나 조사 연구가 희소하고 전문가족차 거의 없는 우리 형편이다. 이 연구는 이런 상황속에서 크게 낙후된 우리나라 노인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정년퇴직한 연금수혜자 약 800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구조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 老人의 생활 공간은 가정적으로는 핵가족화로 노인의 지위와 권한이 크게 상실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등의 도입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크게 경감되고, 또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노인의 경시 또는 소외가 날로 심화되는 등 크게 制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1795. 宋聖子, 成圭鏞, “貧困家族과 社會事業”(국문), 社會福祉 제 32 권 제 3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가을, pp. 7~24.

Song Sung-Ja, Sung Kyu-Taik, “Social Services for Low-income Families”(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2 No. 3,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July-September 1986, pp. 7~24.

이 논문에서는 빈곤가족의 문제를 주로 기능적인 면에 입각하여 고찰하고 빈곤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가족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영세민 가족을 위한 자립 대책과 빈곤으로 인한 제반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유형을 구상해 보고 있다.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주어지는 下向式의 施惠方法보다는 빈민가족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수정·보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상해 보고 있는 것이다.

1976. 이옥주, “가족의 긴장과 극복책략에 관한 고찰”(국문) 여성연구논총 제 2 권, 서울여대 여성 연구소, 1986. 6, pp. 50~61.

Lee Ok-Joo, “Research Review on the Family Stress and Coping Strategies”(in Kor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 Women's Study Institute, Seoul Woman's Univ. Seoul, Korea, 1986. 8, pp. 50~61.

산업사회에서 가정의 정신적 건강과 가족의 긴장 및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또는 가족의 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진 산업사회에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긴장요인을 고찰하고 가족의 위기극복 능력을 규명하여 극복책략을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론에서는 가족긴장이론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Hill의 가족 긴장 모델을 중심으로 긴장변인과 가족의 극복능력, 사회적 지지요인을 고찰하고 위기극복 또는 통책 책

략을 고찰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가족의 위기에서 가족간에 적응능력, 극복능력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또는 개념적인 이론을 종합해 내고 있다.

1797. 宋聖子, “가족문제에 대한 逆說의 접근법의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시론”(국문), 사회복지학회지 제 8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3, pp. 11~34.

Song Sung-Ja, “On Adaptation of the Paradoxical Approach to Problems of Korean Families”(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VIII,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3, pp. 11~34.

본 연구에서는 첫째, 새로운 변화에 저항을 많이 하는 가족을 치료하기 위한 역설적 접근법에 대한 변증적 설명과, 역설적 접근법의 기술을 고찰하고 둘째, 한국 문제가족 가운데 가족 치료나 치료자에 대한 저항이 있는 가족에 대한 역설적 접근법의 적용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가족치료 상담이 발전 초기단계에 있지만, 가부장권 중심의 가족의식과 관계지향적인 사회적 성향을 가진 한국 가족문제에 있어 가족치료자의 개입으로 문제행위를 변화하는 데 있어 저항을 다루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한국문제가족을 위한 치료적 모델을 만드는 데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장차 실험조사 연구를 통하여 통하여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1798. 裴光雄, “障礙家族의 再活用 위한 構造的 家族治療의 接近研究”(국문), 사회복지학회지 제 8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3, pp. 35~56.

Bae Kwang-Ung, “Study on the Structural Family-Therapy Approach to the Rehabilitation of Families of the Handicapped”(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VIII,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3, pp. 35~56.

본 연구에서는 Munichin이 개발한 구조적 가족치료의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1) 재활복지 시설에서 가족치료 접근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적용기술의 유용성과 가족치료 결과의 변화 측정이 용이한 구조이론을 적용시켜 효율성을 측정하고, 2) 장애가족의 문제가 가족의 역기능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하여, 3) 사례의 연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활사회사업분야에 임상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구조적 가족 치료는 전가족이 장애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가정의 스트레스를 공명하여 가

죽위기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을 줌으로써 재활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99. 허남순, “未婚母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국문) 사회복지학회지 제 8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3, pp. 107~134.

Hurh Nam-Soon, “Study on the Causes of Unmarried Motherhood”(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VIII,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3, pp. 107~134.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 경험이 없는 미혼모 집단과 성경험이 없는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학력이 동일하고 연령이 동일한 경우에서 미혼모 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1) 개인이 성격적 요인, 2) 개인의 가정적 요인, 3)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 4) 개인의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등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필자는 가족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서비스의 제공, 결혼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보조 및 서비스의 제공, 가족의 강화 및 부모를 위한 교육의 실시, 성교육 강화, 사회교육등은 미혼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1800. 李興卓, “男兒選好 思想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국문), 논문집 제 20 집, 한국 외국어 대학교, 1987. 5, pp. 599~628.

Lee Hung-Tak, “Fertility Impact of Son Preference ; A Theme on Sex Imbalance”(in Korean) *Journal* Vol. 20,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1987. 5, pp. 599~625.

본 연구에서는 1974 년의 한국출산력조사에서 밝혀진 강한 남아선호도를 1985 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역시 전국규모로 실시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남아선호도와 비교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1974 년에서 1985 년에 걸친 약 10 년이 넘는 기간에 남아선호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야기되었으며 이 같은 출산형태에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 및 간접적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근본목적 을 두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강한 남아선호 사상이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性比 불균형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인구구조 정책에서 경시되어 온 터울조절을 위한 불임수술 이외의 보다 효과적인 출산조절 방법을 권장함으로써 앞으로 성비 불균형의 심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1801. 李京子, “家庭奉仕 서비스제도에 관한 연구”(국문), 여성연구 제 5 권 제 2 호, 한국여성개발원, 1987, pp. 5~48.

Lee Kyung-Ja, “A Study of the Home-maker Services for the Aged”(in Korean), *The Women's Studies* Vol. 5 No 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7, pp. 5~48.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가정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서비스 제도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이 제도에 대한 노인의 요구와 자원활동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가정봉사 서비스의 봉사내용과 효율적인 봉사체계의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자원 활동자의 훈련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과 자원 활동자의 요구 조사결과, 노인은 이 제도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나, 자원 활동자의 경우 힘든 서비스내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두 집단의 요구가 상이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필자는 가정봉사 서비스제도를 그 지역사회내에 존재하고 동원 가능한 자원과 사회적 환경속에서 그 범위와 내용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결과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1802. 李瑛 외, “한국 就業母의 子女養育 現況과 問題點”(국문), 여성연구 제 4 권 제 4 호, 한국 여성 개발원, 1986. 12, pp. 32~67.

Lee Young et al., “Child Rearing Support Systems for Korean Working Mothers”(in Korean), *The Women's Studies* Vol. 4 No.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6, 12, pp. 32~67.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에 부모가 될 여대생들의 장래 취업의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적어도 향후 5~10 년간 우리나라 대학출신 기혼여성의 취업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구조의 변화이 외에도 개인의 태도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게 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야기될 취업모의 자녀양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취업모의 자녀양육문제는 국가의 고급인력요청에 부응하며 또한 교육투자에 대응한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로 대학출신 여성의 취업율을 전망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은 결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배우자의 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남자대학생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4. Occupation and Labor Force

職業과 勞動力

1803. 이경용, "광산근로자의 직업이동"(국문), 연세사회학 제 8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7, pp. 54~70.

Lee Kyung-Yong, "The Occupational Mobility of Mine Workers"(in Korean),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 8,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 Seoul, Korea, 1987. pp. 54~70.

본 연구는 노동력의 보존상태가 광업부문에 있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직업이동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직업이동의 원인이나 유형들을 정립하기보다는 현재의 광업부문에 있어 직업이동의 규모가 어떠한 부분들이 이동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광산근로자들의 취업위험이나 취업동기 그리고 광업부문과 노동력 이동이 일어나는 산업부문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산업구조의 이해에 도움을 주리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직업이동현상이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의 발견은 노동력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804. 石泰種 "學校教育이 職業的 地位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국문) 研究論叢 제 4집, 상지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986. 9, pp. 63~88.

Suk Tae-Jo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hooling upon the Occupational Status"(in Korean), *Research Review* Vol. 4,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Sangji College, Wonju, Korea, 1986. 9, pp. 63~88.

본 연구는 학교교육이 개인의 직업적 지위의 획득 및 이동에 어떤 영향을, 그리고 얼마만큼 미치는가를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① 직업적 지위의 개념 ② 사회이동과 직업의 전환 ③ 학교교육과 직업적 지위에 관한 이론이 검토되고 교육수준, 학교평성, 학업성취, 직업이동, 직업·취업연대의 6가지 변인을 설정하고 이를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740명의 성인남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요약해 보면 1) 직업적 지위 획득 및 이동에 작용하는 학교교육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수준, 학교명성, 학업성취의 정도이다. 2) 학교교육 요인은 직업적 지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3) 우리사회에서 학교교육요인이 직업적 지위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등이다.

1805. 權英子, "既婚女性の 再就業 現況에 관한 研究"(국문) 여성연구 제 4권 제 4호, 한국여성개발원,

1986. 12, pp. 5~32.

Kwon Young-Ja, "A Study on the Re-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arried Women"(in Korean) *The Women's Studies* Vol. 4 No. 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6. 12, pp. 5~32.

본 연구는 고학력 기혼여성의 재취업 현황을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현재 대기업에 공채되어 근무하고 있는 재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취업적 배경과 재취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필자는 기혼여성의 재취업이 기업, 개인,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로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업체에서는 더 이상의 기혼여성의 공채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퇴직제 등에 의해 취업을 중단한 의욕적이고 고급한 여성인력이 사장(死藏)될 위기에 있으므로 수요적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기혼여성의 도시공식부문에의 취업은 계속 제한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1806. 송종래, "經濟的情報化와 職業構造의 變化"(국문), 노동문제논집 제 8집,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1986. 8, pp. 99~121.

Song Jong-Rae,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Sector and the Change of Occupational Structure"(in Korean),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Vol. 8,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 Seoul, Korea, 1986. 8, pp. 99~121.

최근 들어 ME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정보관련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직업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정보활동과 관련된 직업의 범위를 국제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18종으로 정하고 취업통계에서 이 직업종사자들을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 정보노동자의 총취업자대 비율은 1976~84년 기간에 11.4%에서 20.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07. 金愛實, "女性과 經濟活動"(국문), 논문집 제 19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1986, pp. 601~613.

Kim Ae-Sil, "Women and Economic Activities"(in Korean), *A Collection of Articles and Essays* Vol. 19,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1986, pp. 601~613.

이 논문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 직접적 계기와 원인들을 살펴보고 경제활동 참가추세의 변화, 취업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여성인

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알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영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추세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취업여성의 종사상의 지위, 직종·직급 및 임금을 중심으로 한국 취업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고 있다. 결론에서는 미래사회와 여성의 경제활동전망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여성 취업의 근본적인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성차별 의식의 뿌리를 뽑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교육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결론짓고 있다.

1808. 강문희, 강혜련, “대학졸업 여성의 직업관 및 유망직종 분석에 관한 연구(I)”(국문 및 영문요약), 여성연구논총 제 2 권,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1986. 8, pp. 21~49.

Kang Moon-Hee, Kang Hye-Ryun,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rospective Jobs and the View of Occupation of Highly Educated Wome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 Women's Study Institute, Seoul Woman's Univ., Seoul, Korea, 1986. 8, pp. 21~49.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여성의 취업활동을 돕고자 그들의 취업동기 및 직업관과 이들이 생각하는 장래의 유망직종을 알아보고 그 직종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체적인 결과는 대졸여성의 대부분이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대생들에게 대한 취업지도가 저학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직업에 관한 정보와 특별강의도 여대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809. 金章鎬, “우리나라 女性 勞働力의 需給構造 變化와 既婚女性의 勞働參加”(국문 및 영문요약), 亞細亞女性研究 제 25 집,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86. 12, pp. 133~161.

Kim Jang-Ho, “Some Aspects of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Asian Women* Vol. 25, 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6. 12, pp. 133~161.

본 연구의 목적은 1) 지난 196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여성노동력의 공급구조 및 취업패턴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성인력의 공급원

천으로서의 기혼여성 노동력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부각시키고, 2) 이를 위해 신고전파 노동공급 이론의 소개와 적용을 모색하고, 3)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노동 참가 형태에 대한 실증분석에 필요한 미시자료의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1970년대 초반까지 도시 여성취업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20세 미만의 연소 연령계층의 노동참가율이 1970년대 후반 이후 소득 수준의 상승 및 의식구조의 변동으로 여성 취학율이 증대함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인구의 연령구조상 70년대 초반까지 가장 큰 비중을 점했던 25세 미만의 연령계층의 여성 인구의 비중이 그 이후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앞으로 여성노동력의 공급가능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질 연령계층은 30대 이후 기혼 여성 계층임이 지적되고 있다.

1810. 申星澈 “特定死因除去程度가 部分勞働力 餘命에 미치는 延長校果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13~29.

Shin Sung-Chul, “The Study on Potential Gain in Working Life Expectancy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ath”(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13~29.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연령기에서 主要死因除去程度에 따른 部分勞働力餘命의 延長校果와 勞働力離脫率 減少效果를 살펴봄으로써, 다시말해 觀察人口의 死亡構造를 生命表上 時間的 確率概念으로 分析함으로써, 각 해당 연령에서의 각 死因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망구조 및 死亡力이 장래 선진국의 그것을 따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사망을 감소에 따른 勞働力餘命의 增加效果와 勞働力離脫率 減少校果 및 경제활동인구의 성장정도를 파악하여 국가적 인력 수급계획과 사회복지대책을 위한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있다.

1811. 尹辰浩, “都市非公式部門의 勞働力 移動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5집,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315~346.

Yoon Jin-Ho, “A Study on the Labor Mobility of Urban Informal Sector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Buttetim of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Vol. 5, Inha Univ., Incheon, Korea, 1986, pp. 315~346.

본 논문은 제 3 세계 국가에서 최근 비공식부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발전국가에서의 비공식부문이란 개념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개념과 실증적인 면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하에서, 비공식부문은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디로 가는가?, 공식집단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화가 되는가? 혹은 자본축적 결과로 자본주의가 되는가? 등의 문제를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필자는 1) 도시부문에서 노동력이 재창조되기 때문에 농촌—도시의 이주에 의한 도시노동시장의 영향력은 감소되어 왔고, 2) 비공식부문 노동력 중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안정성 혹은 정체성을 보이며 급격한 프롤레타리아화나 자본축적을 통한 상향이동은 일어나지 않으며, 3) 공식부문의 노동력과 비공식부문의 노동력은 연령·학력·취업시간 면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1812. 金惠蓮, “韓國 女子의 勞動力 生命表를 통해서 본 勞動力 推移 分析”(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6권 제 1호,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1986. 7. pp. 41~56.

Kim Hye-Ryun, “Labour Force Life Tables: An Analysis of the Korean Female Labour Forc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6 No.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July 1986, pp. 41~56.

본 연구는 최근에 들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노동력 인구의 양상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970년과 1980년의 여자노동력 생명표의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자의 靜止勞動力 인구는 연령별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 2) 1970~80년간 노동력 加入率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세 군에서 두드러진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3) 노동력 이탈율은 10년간 감소현상을 나타내며 특히 고연령층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 4) 평균 노동력 餘命은 1970년 15세에서 1980년에는 20.8세로 신장되었다.

1813. 이효재, “한국여성 노동주기(Work-cycle)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論叢 제 49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1986, pp. 143~170.

Lee Hyo-Chae, “Korean Industrialization and Women’s Work Cycl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Vol. 49, Kore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 Seoul, Korea, 1986, pp. 143~170.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노동의식 및 직업의식의 변화는 결혼으로 인한 차별을 배격하며 직업의 안정과 이에 부응하는 노동정책, 교육정책 및 사회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에 의하면 수출주도형 산업화과정에서 여성노동참여의 구조적 성격은 차별적인 고용과 저임금에 기반한 것으로 고도산업화단계에서 이 구조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구조는 농촌에서 밀려나 도시노동력으로 이농해온 여성들이 노동계급속에서도 가장 차별 당하는 노동력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차별적 구조가 여성의 개인 생활사의 측면에서는 노동주기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1814. 안계춘, “우리나라 勞動力의 構造와 變動”(국문), 연세사회학 제 7집, 연세대 사회학과, 1986, pp. 5~38.

An Gei-Choon, “The Structure and Change of Labor Force in Korea”(in Korean),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 7,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6, pp. 5~38.

본 논문에서는 1963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기 위해, 노동력 규모의 변동,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 및 성별구성, 취업율과 실업율의 변화, 산업 및 직업별 취업 구조의 변화를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노동력 공급 전망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농업부문 노동력의 절대적 감소를 위한 농업의 기계화와,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앞으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개편될 것을 대비한 기술인력 양성 대책의 마련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1815. 崔吉相, “女子 勞働者의 勞動力의 移動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8권 제 1호, 목포대학, 1987. 6, pp. 83~147.

Choi Kil-Sang, “A Study on Occupational Migration of Female Labor Force with an Emphasis on Occupational Consciosness and Ethic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of Mokpo Nat’l College* Vol. 8 No. 1, Mokpo Nat’l College, Mokpo, Korea, June 1987. pp. 83~147.

본 논문은 최근의 근로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회의 천시 직종, 기피직종인 생산직 및 유흥업소의 알선 위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직업 윤리적 차원에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1) 공

- 단의 생산직 및 유흥업소의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빈번한 노동력의 전직현상과 요인을 분석 검토하고, 2) 공단의 생산직과 유흥업소 근로자의 상호간에 직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3) 노동력 이동의 결정 모델을 설정하고, 직업의식이나 직업윤리, 직무만족과 직무몰입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분석하여 근로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직업윤리관의 확립과 노동 의욕의 주체적인 태도전환에 의한 생산성 提高와 안정적인 근로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1816. 金仲秀, “勞動力需給의 要因分析과 展望”(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6. 7, pp. 41~53.
- Kim Choong-Soo,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and Long-term Projections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Labor Forc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uly 1986, pp. 41~53.
- 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시장 변화추이를 노동공급 및 수요 양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을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實證分析하고 앞으로의 노동수급을 전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 I 절 서론에 이어 제 II 절에서는 노동공급 및 수요 결정모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제 III 절에서는 추정된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제 IV 절에서는 앞으로 10 년간의 노동수급의 장기전망을 한 후, 제 V 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1817. 박 회, “한국 의류·전자 수출 대기업의 노동과정”(국문), 연세사회학 제 7 집, 연세대 사회학과, 1986, pp. 119~170.
- Park Hi, “The Labor Process of the Textile and Electric Major Enterprise in Korea (in Korean),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 7,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6, pp. 119~170.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수출대기업에서의 노동과정과 노동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자들이 작업과정 속에 편입되는 방식, 노동통제를 위한 직무분할과 분업, 기술에 따른 통제의 특성, 작업장 내에서의 계급관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잉여가치의 산출의 문제와 이에 따른 노동의 존재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C. Palloix, A. Lipietz 등의 프랑스 규제학파의 자본축적과 노동과정관계를 기초로 하고, 선진자본주의의 경험관리체계, 노무관리 기법에 의해 조인된 자

본주의적 노동과정의 일반적 원리가 한국 수출 대기업에 어떻게 이용되고,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1818. 윤진호, “都市勞動市場의 形成과 非公式部門의 役割”(국문 및 영문요약), 연구논문집 제 1 집,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1987. 5, pp. 125~147.
- Yoon Jin-Ho, “The Growth of the Urban Labor Market and the Role of the Urban Informal Sector”(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Bulletin of the Institute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Vol. 1, Institute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Inha Univ., Incheon, Korea, 1987. 5, pp. 125~147.
- 이 글에서는 자본제 부문과 도시비공식부문간의 관계를 노동시장론,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형성론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개발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광범한 소경영 영역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본제 부문의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소경영 부문은 내외독점자본의 축적조건에 의해 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독립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실질적으로는 자본축적기 구축에 편입되어 있다. 이들에 한다면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현실적 존재영역으로서 노동시장의 배경을 이루면서 임노동에 대해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청·유통 등의 상품관계를 통해 자본제 부문에 잉여를 수탈당하는 이중의 고리 속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1819. 민경희, “한국 농촌의 여성노동, 1980: 토지, 노동 및 자본”(영문),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회보 제 15 권,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86. pp. 31~44.
- Min Kyong-Hee, “Women’s Work in Rural Korea, 1980: Land, labor, and Capital”(in English), *Bulletin*, Vol. XV,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1986, pp. 31~44.
- This study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woma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in Korea in 1980. Data are drawn from the 1980 Agricultural Census Report for Guns. Three dependent variables are considered; (1) the overall rate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2)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agricultural work, (3) the multip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both in agricultural and in non

-agricultural work. The six independent variables utilized in the regression analyses re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land, labor, and capital in the agricultural system. The analyses show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effects on each of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With regard to the first two dependent variables listed above,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vary greatly by the areal sex ratio in Gun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women's participation both in agricultural work is the ownership of farm machinery, where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women's participation both in agricultural and in non-agricultural work is size of family land which seems to represent proximity to urban areas.

1820. 김한곤, "韓國에 있어서 各産業部門間 勞動力의 變化過程" (영문 및 국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108~128.

Kim Han-Gon, "The Labor Force Transformation in Korea: 1960~1980"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108~128.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labour force transformation from the primary sector to the secondary and tertiary sectors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termining labour force structure. The structure of labour participation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creased between 1960 and 1970, but it changed little between 1970 and 1980. The rate of 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has been stable while that of female labour force has increased, indicating the growing job opportunity for females.

1821. 朴長煥, "나이별 性別 勞動供給 變動要因에 관한 實證分析" (영문 및 국문요약), 논문집 제 42집, 경북대학교, 1986. 12, pp. 53~64.

Park Jang-Hwan, "Some Evidence on Labor Supply Behavior in Different Demographical Groups" (in English with Korean Sum-

mary), *Research Review* Vol. 40., Kyungpook National Univ., Taegu, Korea, 1986. 12, pp. 53~64.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estimating alternative labor force participation equations, and it is comprised of two parts, each of which containing empirical estimates of a participation equation. The first section describes the labor force model which combines the discouraged worker hypothesis with the neo-classical labor relation supply and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In the following section the 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 is tested. The final section summarizes the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5. Economic Development

經濟發展

1822. 宣榮圭, "經濟發展과 成就欲求에 관한 연구" (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31집, 전남대학교, 1986, pp. 79~108.

Sun Young-Kyu, "A stud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eed of Achievement"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Collection* Vol. 31, 1986, pp. 79~108.

본 연구는 경제발전에서 성취욕구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취욕구를 제고시키는 것은 교육투자에서 있음을 강조하고 경제발전에서 성취욕구의 필요성을 각종 논거를 통하여 추론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1) 문제의 제기, 2) 경제발전에서 비경제적 요인, 3) 성취욕구의 개념, 4) 경제발전에서 성취욕구의 역할 순으로 고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취욕구의 모체인 성취동기는 인간의 욕구와 의지력이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것이 경제발전과 직결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성취욕구, 교육투자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간의 의지력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823. 朴餅洪, "經濟發展上 中小企業의 役割과 그 育成方案" (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21-1집, 원광대학교, 1987. 6, pp. 311~338.

Park Byung-Hong, "A study on the Role and Policy Direction of the Medium and Small Industry in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Vol. 21-1, Wonkwang Univ., Iri, Korea, 1987. 6, pp. 311~338.

본고는 그 동안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조장되어 일부 소수 재벌기업 및 특정 부문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간 산업 각 부문간, 지역간, 계층간 불균등을 초래하였다는 문제 제기 하에서, 국민 경제발전상 중소기업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국민경제상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밝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비교우위성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제력 취약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의 상대적 요인을 해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시책의 기본방향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만이 선행조건이라는 시각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1824. 金大模, “開放經濟에서의 所得分配과 經濟成長”(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30집, 중앙대학교, 1986, 12. pp. 9~34.

Kim Dae-Mo,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an Open Econom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Collection Vol. XXX*, Chungang Univ., Seoul, Korea, 1986. 12, pp. 9~34.

본 논문에서는 80년대의 우리 경제에서 분배와 성장과의 실증적 관계가 상충적인가 또는 보완적인가를 규명하고 우리 경제에서의 外資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배와 국제수지와의 관계도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분배와 성장과의 이론적 관계를 검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실증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설적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르는 자본축적·자본소요·부가가치·수입 등의 변동을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1) 우리 경제에서 소득분배의 개선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우리 경제에서 소득분배의 개선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결론을 얻어내고 있다.

1825. 李大根, “韓國經濟의 破行的 發展過程에 관한 一考察”(국문), 韓國經濟 第 14 卷, 成均館大學校 韓國產業研究所, 1987. 1, pp. 119~140.

Lee Dae-Keun, “A study on the Ill-balance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14*,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velopmen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1987. 1, pp. 119~140.

本考는 한국 경제가 개항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통적 경제구조의 破行的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고, 한국이 植民地社會로 전락하는 일제 시대부터 1960년대 이후의 重化學工業

化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로 나누어 그 구조변동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것은 주로 農-工간의 산업구조, 또는 공업내부 구조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첫단계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한국경제는 개항후 1920년대까지 일본의 강압적 공업화 저지책에 의해 뒷받침된 미곡 중심의 食糧基地化 및 광물개발을 통한 原料基地化 정책으로 식민지 조선내의 민족자본 육성이 방해받는 등 식민지공업화의 초기 조건이 왜곡된 상태에서 출발, 1930년대에도 역시 일본의 농업 및 산업 자본의 요구로 군수산업 개발과 병참기지화로서 공업화가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南農-北工의 구조적 分業關聯性이 단절, 특히 남한 경제는 농공간은 물론 공업 상호간에서도 구조적 파행성을 노골화하게 되었고 세번째 단계에서는 1950년대 전쟁의 피해를 배경으로, 국내 농업 및 중소기업의 파멸을 조건으로 하는 援助工業化가 이루어짐으로써 파행적 구조변동이 나타나는 한편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 들어서는 대외적인 중속적 발달이 전면에 부각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 나라 경제구조의 대내적인 파행적 발달과 대외적인 중속적 발달은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이 점이 오늘날 제 3세계 경제를 하나의 국민경제 영역으로 하여 구조변동문제를 다룰 때 주어지는 중요한 인식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1826. 李泰旭, “韓國經濟開發의 戰略과 그 影響”(국문), 經商論叢 第 12 輯, 西江大學校 經濟·經營問題研究所, 1986. 9, pp. 209~221.

Rhee Tai-Wook,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Its Impacts”(in Korean), *The Sogang Journal of Commerce Vol. 12*,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86. 9, pp. 209~221.

本考는 한국 경제가 과거 발전과정에서 量的 成長面에서는 큰 성과를 보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적들을 등한시 함으로써 여러가지 構造的인 副作用이 발생하여 顯在化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과거 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 基本戰略과 開發計劃의 成果에 대하여 검토하고 政府가 이러한 開發計劃에 어떠한 역할과 영향을 주었는지를 分析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主導에 의한 경제 개발 전략의 긍정적인 면을 經濟成長과 관련된 量的指標에서, 부정적인 면을 質的적인 經濟構造的 跛行性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구조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성장 우선에 입각한 정부주도 전략에 限界點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827. 林熙喆, “經濟·社會發展의 問題”(국문), 산업연구 제 10 집, 단국대 산업연구소, 1987, pp. 107~122.

Rim He-Chol, “Suggestive Thinkings of Some Issues Arising in the Course of Economics and Social Development”(i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Vol. 10, The Institute of Industrial Studies, Dankook Univ., Seoul, Korea, 1987, pp. 107~122.

本稿는 경제발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은 대부분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사회발전에 따르는 일부문제에 대한 가설적 吟味를 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사회 발전의 문제와 관련된 Keynes, H. Kahn, Galbraith류의 진보적 자유주의, G. Fisk 등의 예언을 검토하면서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총소년문제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증진은 상호의존적이고 양자가 조화되어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면밀하게 예측·검토하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28. 李相出, “開發途上國間の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的 考察”(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8 집, 안동대학, 1986, pp. 333~352.

Rhee Sang-Chool, “A Theoretical Study on the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Vol. VIII, Andong National Univ., Andong, Korea, pp. 333~352.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세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첫째는 1차 産品을 수출하는 경제가 공산품을 수출하는 경제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은 공업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 통합을 회원국의 시장을 서로 개방하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域外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원칙으로 삼아 역외국과의 자유무역을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간의 경제 통합에 관한 고유의 구성원리가 추구되어야 하며, 세째는 개발도상국이 경제통합을 결성하더라도 그들간에 경제발전수준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 통합이익이 각 회원국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형평원칙에 입각한 분업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829. 秋再鎬, “韓國의 産業構造 變化와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勞福研究論叢* 제 5

집, 경남대 노동복지 연구소, 1986. 8, pp. 1~86.

Choo Jae-Ho,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tructural Change in Korean Industr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Labour Welfare* Vol. V, Institute for Labour Welfare, Gyeongnam Univ., Masan, Korea, 1986. 8, pp. 1~86.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산업구조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선진국과 산업구조변화 요인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구조고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데 있다.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산업구조변화는 소비재적 경공업부문에서 소비재적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해외시장을 목표로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화로 구조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화학공업이 前後方連關效果는 크지만 높은 수입계수와 수입유발계수 때문에 자립경제 목표와 괴리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830. 裴圭漢, “韓國의 經濟成長과 經營이데올로기”(국문), 한국사회학 제 20 집, 한국사회학회, 1986. 겨울, pp. 99~116.

Bae Kyu-Han, “Economic Growth and Management Ideology in Korea”(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0,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6. winter, pp. 99~116.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 주로 경영자와 노동자를 그리고 정부관리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경영이데올로기> (management Ideology)를 분석하여 구상화시키고, 현 시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 온 경영이데올로기를 가설적 수준에서 논의한 결과, 한국의 경영자들은 위계적 사회관계를 강조하던 유교문화적 토양과 국토분단이라는 특수상황하에서, 정부의존적 기업 발달사, 군출신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최우선의 사회경제적 배정, 그리고 과학적 관리로 효율성을 강조하던 미국식 경영이데올로기와 일본의 가부장적 모델 등 세 요인 가운데서, 자신들의 권위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軍事的 경영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1831. 김차두, “반주변국가 경제발전의 주체에 대한 분석”(국문), 상경연구 제 2 집, 부산산업대 산업개발연구소, 1986. 10, pp. 199~212.

Kim Cha-Doo, “An Analysis of the Subject

of Economic Development in Semi-Peripheral Countries”(in Korean), *Commerce and Economics Review* Vol. 2, Industri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Pusan Sanub Univ., Pusan, Korea, 1986. 10, pp. 199~212.

본 논문에서는 반주변국가 내부의 생산양식속의 접합과정과 이를 매개하는 상부구조의 역할을 분석하여 세계체제론과 생산양식접합론을 통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인 메이야수의 가족제생산양식, 에반스의 3자동맹, 최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도시비공식부문에 대한 특성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IMF등의 국제 금융기구를 국제자본의 초국가적인 상부구조로 규정함으로써 반주변국가에서의 생산양식들의 접합과 이를 매개하는 상부구조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832. 김영석, 임현진, “한국의 경제개발과 매스커뮤니케이션 :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제언”(국문), *社會科學과政策研究* 제 8 권 제 3 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2, pp. 1~29.

Kim Young-Seok, Lim Hyen-Chin, “Economic Development and Mass Communication in Korea : Some Suggestions for Self-Reliant Development”(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8 No. 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 2, pp. 1~29.

이 글의 목적은 언론과 국가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추진에 있어 매스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득과 실을 따져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론으로서 발전정책과 그에 따르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개괄한 다음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경제발전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작용과 반작용을 살펴보고 그 공과를 평가하고 있다. 필자들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의 언론전략은 지극히 권위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이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개발정책은 자립적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민중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개방적인 언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33. 李在熙, “1970 년대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성격”(국문), 논문집 제 8 집 제 2 권, 부산산업대학교, 1987. 3, pp. 169~180.

Lee Jae-Hee, “An Analysis on the Policy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of Korea in 1970 s”(in Korean), *University Journal* Vol. 8, Pusan Sanub University, Pusan, Korea, 1987. 3, pp. 169~180.

본 연구는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그 정책체계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재생산구조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1970 년대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 필자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정책은 1960년대 경공업 수출대체 산업화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주변적 재생산 구조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간의 국내분업관련은 증대되었지만 이것이 자립적 재생산구조로의 전환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인 수준에서 볼 때 재생산구조의 주변성의 심화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필자는 좀 더 정확한 인식을 위해 종속적 발전론이라는 이론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834. 오경희, “경제발전의 이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국문 및 영문요약), *외대논총* 제 5 집, 부산외국어대학, 1987. 1, pp. 491~516.

Oh Kyung-Hee, “A Study on the Theoretical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in Korean and English Summary), *Theses Collection* Vol. 5,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usan, Korea, 1987. 1, pp. 491~516.

본 연구는 서구중심의 역사적 경제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경제의 물량적 증대에 치중하는 선진국형 주류발전이론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비롯한 후진국의 경제발전의 실패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후진국형 구조주의 이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이론의 양대조류를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성장발전의 의미를 재음미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 대하여 양대이론을 적용시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필자는 제 2 차 세계대전이후의 경제발전이론을 경제성장과 발전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는 전통경제학에 바탕을 둔 선형계단적 성장이론과, 발전 또는 저개발의 원인과 결과를 자본주의체제로부터 규명하고자 하는 구조주의적 종속이론으로 대별하면서, 이것을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여건의 차이와 연관지우고 있다. 더 나아가 필자는 발전의 의미를 상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와 아울러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자기실현의 욕구의 충족으로 파악하는 한편, 종속이론의 한국경제에 대한 부적합성을 제기하고 있다.

1835. 張大翼, “경제개발과 국가의 역할—1970 년대를 중심으로”(국문), 논문집 제 8 집 제 2 권, 부산산업대학교, 1987. 3, pp. 127~148.

Chang Dae-Ik, “The Role of State in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 1970 s”(in Korean), *University Journal* Vol. 8, Pusan Sanub University, Pusan, Korea, 1987. 3, pp. 127~148.

본 연구는 1960 년대의 제 1, 2 차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1970 년대에 실시된 제 3, 4 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과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민경제 나아가 한국자본주의에 대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론의 의의를 가지며, 1970 년대 국가의 역할을 분석하는 지표로 1960 년대의 내외중속성의 심화의 구체적 현상인 외채누중, 부실기업, 노동쟁의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필자는 1960 년대와 1970 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은 국가의 자율성을 그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및 국외의 제약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적 상황시 국가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개혁의지를 토대로 한 자립적 경제구조확립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1836. 김태명, “개발도상국을 위한 한국중공업정책의 교훈과 경험”(영문), 논문집 제 17 집, 한남대학교 1987. 4, pp. 45~64.

Kim Tae-Myung, “Heavy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 Its Lessons and Experi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in English), *University Journal* Vol. 17,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1987. 4, pp. 45~64.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 of heavy industrialization policy, this paper found that the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was characterized by the reconstruction and import substitution policy, the outward-looking export-biased policy, and high spread-effect oriented up-stream industry promotion policy. Korean heavy industries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a problem of overcapacity resulting from overinvestment, obsolescence, unstable provision of raw materials, lack of high technology, and shortage of fund for huge amounts of R & D expenditures.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e structural adjustment should be made to change the major policy direction from the promotion of capital-intensive up-stream

industries to the support of agriculture, and less capital-intensive and more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and other machinery industries.

1837. 신봉호, “韓國의 經濟成長에 있어서 調達”(영문), 논문집 제 20-1 집, 서울시립대학, 1986, pp. 149~176.

Shin Bong-Ho, “Financing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in English), *Theses* Vol. 20-1, Seoul City Univ., Seoul, Korea, pp. 149-176.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how Korea has mobilized savings to meet the investment demand for a higher economic growth during 1962 to 1983.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foreign debt become a major constraint on the development effort from the early 1980 s. The immediate issue was how to increase domestic savings, and to balanc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These objectives could be achieved primarily by curtailing high inflation rate.

6. Political Development 政治發展

1838. 李南永, “韓國人의 政治的 實容性에 관한 體系的 연구”(국문), 현대사회발전 제 1 집, 숙명여대 현대사회발전연구소, 1986. 12, pp. 33~49.

Lee Nam-Young, “A Systematic Study on the Political Tolerance of Korean”(in Korean), *Modern Social Development* Vol. 1, Institute for Modern Social Development, Sookmyeong Women’s Univ., Seoul, Korea, 1986. 12, pp. 33~49.

本 研究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政治意識構造의 일부분 즉, 政治的 實容性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社會內에서 民主主義의 文化的 기반이 어느정도 성숙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명해보고 더 나아가 우리 社會의 민주적 발전의 문제를 전망해보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우리 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의 정착 및 그를 토대로 한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인식하에서, 연구의 현실성을 주장하고 특히 이 분야가 국내에서 거의 불모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개척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1839. 崔良秀, “制憲國會의 立法活動에 관한 評價研究”(국문), 논문집 제 20-1 집, 서울시립대학,

1986, pp. 57~76.

Choi Yang-Soo, "An Appraisal Study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in Korean), *Theses* Vol. 20-1, Seoul City Univ., Seoul, Korea, 1986, pp. 57~76.

본 연구는 우리나라 議政史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판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건국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의 議政活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체계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할 기본문제로서는 審議議決과 審判 및 淨化에 있어서 對立의 처리기능문제와 정치적 통합화 기능의 장애요소 및 입법체계의 정상적 기능화를 위한 개선점등의 도출을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입법과정의 참여의 측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본고는 이러한 종합적 측면의 동태적 접근방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헌정에 있어서 의회사적 고찰이 부족한 면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840. 康根亨, "韓國政治文獻의 性格에 관한 考察" (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22집, 제주대학교, 1986, pp. 367~387.

Kang Kun-Hyu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heju Univ. Journal* Vol. 22, Cheju National Univ., Cheju, Korea, 1986, pp. 367~387.

본 논문에서는 한국정치문화의 성격과 그 결과 초래되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치문화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대략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이며, 특히 각 집단의 정치문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시기는 1970년대이다. 분석의 결과는, 한국정치문화의 기본성격이 권위주의적 정향이 강하며, 근대화 추진 이후 민주주의적 정향이 나타남으로써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향과 공존하는 이른바 정치문화의 이원성이 한국 정치문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841. 金炯烈, "包括的인 政策評價基準에 관한 研究" (국문), *延世論叢* 제 23집, 연세대 대학원, 1987, 4, pp. 119~144.

Kim Hyung-Ryung, "A Study on the Criteria of Inclusive Policy Evaluation" (in Korean), *Yonsei Nonchong* Vol. 23,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 Seoul, Korea

1987, pp. 119~144.

본 논문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기준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정책평가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분석하고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평가는 사후평가에 국한되어 있고 사후평가는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와 결과평가 (output evaluation)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결론에 의하면 정책평가는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사후적인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지표와 정보는 環流作用에 의해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活用되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1842. 李知勳, "韓國政治文化의 基本要因에 대한 經驗的 考察" (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32집, 충북대학교, 1986, 12, pp. 175~202.

Kee Jee-Hoon, "Empirical Measure of Korean Political Culture"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Vol. 32, Chungbuk National Univ., Chungju, Korea, 1986, 12, pp. 175~202.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문화의 7개 기본요인을 한국의 정치문화를 나타내는 특징적 기본요인들로 전제하고, 실제로 이들 요인이 어느정도 각기 경험적 근거를 갖으며, 또 그에 따른 그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비중, 즉 서로간의 중요 순위는 어떠한 상태를 갖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중요과정으로서, 7개 요인에 대한 구체적 측정을 위하여 1) 경험적 지표의 선정과 그에 따른 측정척도의 선정, 2) 정립된 측정척도의 평가, 3) 조사대상으로서의 표본의 설정, 4) 자료수집으로서의 실제 조사의 수행의 단계를 밟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권위주의, 시민성, 공동체성, 소외성, 분파성, 저항성, 민족적 주체성 등 정치문화의 7개 기본 요인이 어느정도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843. 최호일, "韓國에 있어 民主主義의 土着化: 問題와 展望" (국문), *사회과학논집* 제 4집, 동아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12, pp. 185~204.

Choi Ho-Yle, "Developing Democracy in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4,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Donga Univ., Pusan, Korea, 1986, 12, pp. 185~204.

본 논문에서는 "안정된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는 분석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서, 토착화의 문제를 그 동안 한국사회가 경험해 온 근대화과정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 및 정치체제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있어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이는 헌정구조 또는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치지도층을 포함한 한국민의 정치의식, 가치관, 태도 및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일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1844. 玄鍾敏, “韓國의 民主政治 發展指標에 관한 研究”(국문), 사회과학논총 제 4 집, 경희대 사회과학대학, 1986. 12, pp. 53~64.

Hyan Chong-Min, “The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 (in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 College of Social Science, Kyung Hee Univ., Suwon, Korea, 1986. 12, pp. 53~64.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지표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화과정을 통해 민주정치를 구축해 온 선진국의 발전지표를 모델로 한국의 정치발전 양상을 고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구 여러나라와 비교해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사회화 과정이 비교적 늦게 일어나고 있으며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역할 또한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보다 바람직한 민주국가 형성을 위해서 1) 국민의식의 고양과 민주시민의 자세, 2) 정당 및 이익집단의 활성화, 3) 사회의 다원화, 4) 정치의 정통성과 정치 사회화의 확립 등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내실화 노력이 보다 활기차게 연구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845. 金基宇, “政治發展에 있어서 構造機能主義 모델의 批判的 檢討”(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5 권 제 2 호,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1986. 12, pp. 55~129.

Kim Ki-Woo, “A Critical Evaluation of Structural-Functional Model in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n and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 5 No. 2, Pusan National Univ., Pusan, Korea, Dec., 1986, pp. 55~129.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소위 지배적인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발전의 구조기능모델을 1) 초기 구조기능주의자, 2) Almond의 정치발전 개념화, 3) Huntington의 정치발전 개념화, 4) Pye와 SSRC위원회, 5) 기타 구조기능주의자 등 다섯가지 부류로 나누어 분석·설명하고 나아가서 적실성과 적용가능성의 차원에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이 모델의 개념적 구조나 혹은 방

법론적 시각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은 1) 기능적 필요요건의 시각, 2) 목적론적 접근, 3) 서구지향성, 4) 균형 및 안정지향성, 5) 역사적 고찰의 부재, 6) 국제적 환경 및 변수에 대한 고찰의 부재 등이 지적된다. 또한 구조기능접근은 제 1 세계와 제 3 세계 사이의 현실적 국제연계와 역사적 맥락에서 중속적 침투관계를 무시하고 발전의 모든 책임을 제 3 세계의 국내변수나 체제능력에만 전가시키는 소위 ‘체제 및 국가비난본성’을 견지함으로써 제 3 세계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적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1846. 홍동식·브라이언 피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국가발전의 구조적 과정”(영문 및 국문요약), 사회조사연구 제 5 권 제 1 호,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12, pp. 81~99.

Hong Dong Shik, Brian L. Pitcher, “The Structural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 5 No. 1, Social Survey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 Pusan, Korea, 1986, 12, pp. 81~99.

국가발전에 관한 종래의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는 교육, 정치참여, 제도화가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성취하는데 필요하고도 보완적인 요인이라는 가설적 모델을 작성하였다. 이 가설적 모델에 대해 51개 개발도상국의 패널자료(1960~70)를 가지고 패널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된 인과적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접·간접적인 인과과정이 함께 고려될 경우, 이 세가지 구조적 요인은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과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발전수준에 따라 국가발전에 미치는 세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이 현저하게 다름을 보여 주었다.

1847. 金善一, 金虎吉, “제 3 세계 政治體制的 變化 類型과 「코포라티즘」”(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2 집, 부산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5, pp. 9~26.

Kim Sun-Il, Kim Ho-Gil, “Change-Pattern of the Third World Political System and 「Corporatism」”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ocial Science Review* Vol. 2, Institute of Social Science, Pusan Foreign Language Univ., Pusan, Korea, 1987. 5, pp. 9~26.

본 고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민주주

의(Populism)와 코포라티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코포라티즘은 국가와 사회간의 이익대변 체계이며,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의 효율적인 통치방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대의 정치과정에서 볼 때 코포라티즘은 정치적 영역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되는 이익집단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여진다. 효과적인 정치동원과 사회통제에 의해서만 통합될 수 있는 조직된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토대로서의 코포라티즘은 서구의 선진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저발전 국가에서도 체계적인 동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848. 朴鐘珠, “權威主義體制下에서의 立法府-行政府關係分析”(국문 및 영문요약), 論文集 제 20집, 圓光大學校, 1986, pp. 309~349.

Park Jong-Joo “A Study on the Executive-legislatures Relations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Collection Vol. XX*, Won Kwang University, Iri, Korea, 1986, pp. 309~349.

본 연구의 목적은 8·15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주도했던 역대정권의 통치과정을 입법부-행정부 관계의 측면에서 관료적 권위주의 모형에 비추어 설명해 보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기술관료적인 통치유형을 강하게 드러낸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 하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역대 정권하에서 전개된 입법부-행정부 관계유형의 변천과정을 國政目標, 의회의 기능적 자율성, 즉 立法機能·統合機能·評價監督機能과 政策類型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제 3공화국 말기부터 유신체제 이후에 나타난 통치구조와 특징은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理想型에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국면이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 필자는 유신체제의 핵심적 통치이데올로기, 민주적 정치 과정의 배제, 관료중심의 공공정책 형성 및 집행 등을 들고 있다.

7.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都市 및 地域開發

1849. 黃琪源, “都市文化 環境造成計劃의 接近方法”(국문), 環境논총 제 19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1986. pp. 51~70.

Hwang Kee-Won, “An Approach to Planning for the Urban Cultural Environment”(i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X*,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1986, pp. 51~70.

이 글은 문화라는 복합개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概念과 속성, 그리고 도시라는 생활양식과 생활환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지표를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의 성장을 위한 일반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계획의 의의, 대상영역, 계획목표체계와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환경의 文化化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시문화환경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도시행정 내지 도시계획의 공식절차상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계획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법제상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850. 金泰榮, “도시영세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연구 제 2권,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147~170.

Kim Tae-Yeong, “A Study on the Life of the Income Group of Urban Population in Taegu”(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 Taegu, Korea, 1986, pp. 147~170.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하류계층 또는 저소득층 연구의 기틀을 잡아 보려는 것이고, 둘째는 영세민의 생활의 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마련해 보려는 것이다. 주요한 결과는 1) 빈곤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세대주 중에는 여자가 많고 평균연령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다. 2) 주택은 과밀하고 낡고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불량 무허가 주택으로 재개발 대상이 되어 있다. 3) 취업관계는 단순노무직이 많고, 세대주의 31.3%가 무직자이다. 4)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적 측면은 부정이나 불의를 고발규탄하는 적극적인 자세 보다는 이를 방관·관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보다는 특수주의를 두둔한다 등이다.

1851. 玉亮鍊, “도시주민의 경제적 가치관”(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5권 제 2호,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1986. 12, pp. 199~232.

Ock Yang-Lyun, “The Economic Values of Urban Resident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5 No. 2*, Pusan National Univ., Pusan, Korea, Dec. 1986, pp. 199~232.

본 논문은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경제적 발전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면서 한국에서의 도시주민의 경

제적 가치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오늘날에는 전통적 가치에 있어서의 매우 큰 변화가 있다. 2) 남성, 젊은 세대, 농촌지역, 고학력층, 핵가족에 비하여 여성, 노년 세대, 도시지역, 저학력층, 확대가족의 사람들이 더 전통적 가치지향을 나타낸다 등이다.

1852. 權哲賢, “都市下層社會研究에 있어서 貧困의 文化的 視角”(국문 및 영문요약), 대학원 논문집 제 12집, 동아대학교, 1987. 7, pp. 89~100.

Kwon Chul-Hyenn, “An Analytical Perspectives on Culture of Poverty in the Study of Lower Class in Urban Commun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Works of the Graduate School Vol. ⑫*, Graduate School, Donga Univ., Pusan, Korea, 1987. 7, pp. 89~100.

본 논문에서는 Slum 내부의 생활양식에 초점을 두는 연구의 계보중에서 사회해체현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시카고학파의 인간생태학적 분석시각과는 달리 해체개념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빈곤층의 생활양식의 총체를 하위문화로써 파악하려는 「빈곤의 문화」론적 분석시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빈곤의 문화론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1) 개발국 Slum연구의 해석의 틀로써, 2) 빈곤대책을 강구할 때의 논의의 준거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3) 빈곤과 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빈곤 및 Slum현상의 사회학적 분석을 한층 진보시키기 위해서, 4) Slum대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1853. 이종익, “2000년대 지역개발전망과 새마을 운동의 방향변환”(국문 및 영문요약), 새마을 연구논문집 제 4집, 청주대 새마을연구소, 1987. 2, pp. 5~14.

Rhee Chong-Ik, “A Prospect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ew Community Movement”(in Korean and English Summary), *Saemaul Research Review Vol. 4*, Saemaul Research Institute, Chongju Univ., Chongju, Korea, 1987. 2, pp. 5~14.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한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고 새마을 운동과 지역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은 그 대상지역이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하향적 개발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우리사회가 지방자치의 정착화와 함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해 본다면, 상

향적 개발을 비롯하여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1854. 梁承柱, “우리나라 地域間 隔差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8권 제 1호, 목포대학, 1987. 6, pp. 233~254.

Yang Seung-Zu, “A Study on the Regional Disparit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of Mokpo Nat'l College Vol. 8 No. 1*, Mokpo Nat'l College, Mokpo, Korea, 1987. 6, pp. 233~254.

본 논문에서는 지역간 격차실태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산업구조, 소득의 측면에서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 증가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고 수도권 지역과 부산이 제주를 제외한 전지역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남과 전북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경우 가장 발전된 구조를 보이는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과 동남권(부산, 경북, 경남)이며, 낙후된 지역은 서남권(전북, 전남, 제주)과 중부권(충북, 충남)이다. 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이며 낮은 지역은 전북, 충남, 전남을 비롯한 제주, 강원, 충북, 대구, 경북이다. 이에따라 필자는 지역간 격차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의 산업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하고 있다.

1855. 金泰保, “제주지역의 經濟開發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22집, 제주대학교, 1986, pp. 265~292.

Kim Tae-Bo, “A Study on Econom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Local Finance in the Cheju Reg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heju Univ. Journal Vol. 22*, Cheju National Univ., Cheju, Korea, 1986, pp. 265~292.

본 연구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해 이론문헌을 이용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제주도 지역 경제의 실태 및 기반분석, 지방재정의 연결성 분석과 지방재정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고 있는데 분석을 위한 자료는 입수 가능한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자료로서 대부분 주민소득년보, 지방재정연감, 제주도통계연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개발의 방향을 기반산업의 확충, 자원 활용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관련 산업과의 연결

과 융합,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와의 연결성의 강화에 두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1856. 朴郁成, “地域社會開發의 接近方法”(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6집,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pp. 335~358.

Park Ug-Seong, “A Study on the Approach of Community Development”(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6, Chungju Univ., Chungju, Korea, 1987, pp. 335~358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이론적 측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접근방법들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을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때 그 기본성격을 1) 교육적과정, 2) 조직화의 과정, 3) 사회적행동의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변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는 경제개발에 강조점을 두게 되지만, 이러한 단계가 지나고 나면 지역사회의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857. 高秉浩, 韓石泰,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발전 모형과 새마을 운동 전략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새마을 연구논문집 제 4집, 청주대 새마을 연구소, 1987. 2, pp. 127~151.

Ko Byung-Ho, Han Suk-Tae,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Model and Strategic Change of the Saemaul Undong”(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aemaul Research Review* Vol. 4, Saemaul Research Institute, Chongju Univ., Chongju, Korea, 1987. 2, pp. 127~151.

본 논문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현안의 과제인 지역발전의 문제를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방향전환의 탐색을 통하여 그의 해결 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지역발전 모형설정과 새마을 운동의 전략변화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결론은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함께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도모되어야 할 것이고 발전의 형태는 量보다는 質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을 고도화하는데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방식은 지역사회개발 운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을 광역개발의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로 유도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1858. 高永柱 外, “都·農間 새마을운동의 연결에 관

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새마을연구 제 4집, 경상대 새마을 연구소, 1986, pp. 1~44.

Ko Yang-Zu et al., “The Ways of Improving the Linkages Between Urban Saemaul Undong and Rural Saemaul Undong”(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aemaul Review* Vol. 4, Saemau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 Jinju, Korea, 1986, pp. 1~44.

도시새마을사업과 농촌새마을사업은 비록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호 밀접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상호협조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도시새마을사업과 농촌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 도시새마을사업과 농촌새마을사업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 분석하고, 2) 도시새마을사업과 농촌새마을사업의 연계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3) 도시새마을사업과 농촌새마을사업의 연계유형 및 상호보완가능한 사항 등을 발견하고, 4) 도·농자매결연사업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1859. 柳時中, “韓國 地方大都市에 있어서의 階層構造에 관한 實證的 考察(I)”(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연구 제 2권,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23~50.

Yu Si-Jo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atified Structure of a Local Metropolis, Taegu, in Korea”(in Korean and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 Taegu, Korea, 1986, pp. 23~50.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대도시인 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불평등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1) 계층의식과 계급의식의 현실, 2) 계층구성파 관련된 지역사회의 ‘하위문화’로서 나타날수 있는 생활양식, 3) 사회이동의 실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여기서는 “1)”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파악되고, 표본집단을 통해 본 대구시민들의 전체적인 경향은 그들이 사회불평등 현상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면서도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 계급의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실궁정적인 계층의식을 지닌 성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860. 金吉平, “農村地域開發의 基本方向”(국문), 논문집 제 10집, 한성대학, 1986. 12, pp.

363~398.

Kim Kil-Pyung, "The Basic Model Building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n), *Hansung Journal* Vol. 10,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1986. 12, pp. 363~398.

본 연구는 농촌과 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여 우리나라 국토를 살기좋은 터전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에 농촌지역개발의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역사회개발을 주민들이 자주, 자립, 협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들의 생활을 향상 또는 개선하는 운동으로 파악하면서,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도 주민의 욕구에 입각하여 경제, 문화 및 사회등의 측면에서의 종합적 균형적 개발방식에 입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861. 朴文政, "地域經濟成長理論의 體系的 考察"(국문), 논문집 제 13집, 경남대학교, 1986. 12, pp. 331~364.

Park Moon-Jeong, "A Systematic Review on the Theory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n), *Collection of Theses* Vol. 13, Gyeongnam Univ., Masan, Korea, 1986. 12, pp. 331~364.

본 연구는 지역경제문제에의 접근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내용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성장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를 종합·체계화함으로써 각 성장모형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필자는 지역성장 모형들은 중심성장인자의 인식 내지 접근각도로 보아 1) 수요측 접근이론, 2) 공급측 접근이론, 3) 불균형 지역성장이론, 4) 구조적 접근이론, 5)계량경제학적 성장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각 이론들의 한계로 보다 발전된 이론모형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862. 洪性雄, "地域政策의 課題와 限界"(영문 및 국문요약), 국토연구 제 6권, 국토개발연구원, 1986. 12, pp. 1~16.

Hong Sung-Woong, "Regional Policy Reconsidered"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V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Seoul, Korea, 1986. 12, pp. 1~16.

This paper reviews some basic issues in regional policy. This paper identifies firstly the fundamental causes of regional problems.

Secondly, the concepts of region, residents and their mobility are examined in view of the distributional policy objectives. The paper tries lastly to classify goods in terms of their distributional implications, and to suggest proper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areas of regional policy.

1863. 鄭大然, "都市構造의 古典的 分析들에 대한 批判的 考察—'자연지역'과 '책임한계지역'을 중심으로"(영문 및 국문요약), 논문집 제 22집, 제주대학교, 1986, pp. 333~346.

Jeong Dai-Yeun, "A Critical Review of Traditional Approaches to Urban Structure" (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Cheju Univ. Journal* Vol. 22, Cheju Nationl Univ., Cheju, Korea, 1986. pp. 333~346.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explore the theoretical positions of 'natural areas' and 'community of limited liability' approaches, and to examine their empirical validity for a better conceptual understanding of urban community structure, particularly in today's urban settings. Both approaches are 'conceptually' ambiguous and their empirical validity is difficult to determine. Alternatively, it is suggested to adopt symbolic-framework or orgarnizational framework for analyzing urban ecological structure.

8.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近代化와 社會變動

1864. 朴榮吉, "近代化 理論에 관한 觀點과 전망"(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8집, 안동대학, 1986. 12, pp. 455~465.

Park Young-Gil, "Perspective on Modernization Theory"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Review* Vol. VIII, Andong National Univ., Andong, Korea, 1986. 12, pp. 455~465.

본고에서는 발전 사회학의 통합적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근대화이론에 대한 주요 관점과 비판적 시각 및 근대화 이론이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근대화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을 1) 사회심리학적 접근, 2)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3) 정치경제적 접근, 4) 역사적 근대화 이론으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근대화의 연구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모순들과 사람들

로 하여금 자신들의 변화를 유도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적 발전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가지 개념적 도구들을 가지고 근대화에 접근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적 자료로서 새로운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1865. 趙惠貞, “近代化에 따른 性役割 構造의 變化”(국문), 여성연구 제 5 권 제 2 호, 한국여성개발원, 1987, pp. 99~139.

Cho Hae-Jung, “Transformation of Gender Structure of Korea’s Cheju Island”(in Korean), *The Women’s Studies* Vol. 5 No. 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7, pp. 99~139.

본 연구는 산업자본주의화 과정속에서 제주도 해녀 마을이 거치고 있는 변동의 양상을 성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경제적 기반이 변함에 따라 전통적 형태의 가부장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성별분업과 위계 그리고 성에 따른 기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형·생성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 수준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생활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개인의 동기과 의식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덧붙여서 변동의 기제와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1866. 韓英子, 高甲錫, “韓國과 臺灣의 主要社會指標 比較考察—人口指標를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한국인구학회, 1986. 12, pp. 30~41.

Han Young-Ja, Koh Kap-Suk, “A Comparative Study of Major Social Indices Focusing on the Population between Korean and Taiwa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9 No. 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6. 12, pp. 30~41

본 고에서는 韓國과 臺灣을 平面的으로 보아 지난 四半世紀(1960~1985年) 동안의 발전경로를 주요 사회지표를 통해 간략하게 비교하고 특히 인구지표를 보다 밀도있게 고찰해 봄으로써 양국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인구지표에서 유사성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필자는 한국과 대만을 인구정책의 形成 및 執行에 있어 보다 더 긴밀한 교류를 통해 서로가 協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1867. 姜大基, “都市-農村의 生活樣式 比較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조사연구 제 5 권 제 1 호,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1986. 12, pp. 1~19.

Kang Dae-Ki, “A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Way of Lif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 5 No. 1, Social Survey Research Center, Pusan, Korea, Dec. 1986, pp. 1~19.

도시화에 수반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Wirth와 Gans 사이의 논쟁적인 가설을 부산과 경남 지역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Wirth의 도시성(Urbanism) 개념의 일부인 傳統的 倫理觀, 世界主義(Cosmopolitanism), 近隣關係, 社會的不信을 지역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전통적 윤리, 세계주의, 근린관계가 도시와 농촌에서 몇가지 차이를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Wirth와 Gans의 이론 중 어느 한쪽의 입장보다는 두 이론의 부분적 수용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868. 吳錫泓, “韓國社會의 變動趨勢—행정 環境 변화추정”(국문), 한국행정학보 제 21 권 제 1 호, 한국행정학회, 1987. 6, pp. 103~114.

Oh Suck-Hong, “Changing Environment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in Korea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XXI No. 1,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eoul, Korea, 1987. 6, pp. 103~1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장기적인 진로 내지 개혁방향을 처방하려면 장래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대체로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장래를 염두에 두어 행정환경변화의 추세를 예상해 보고 있다. 필자는 우리사회에 관한 미래의 추정이 어렵고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예측’(projection)과 같은 엄격한 용어는 피하고 ‘추정’(anticipation)과 같은 다소 여유있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의 문제에 연관된 제영역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고찰하고 있다.

1869. 조희연, “韓國資本主義의 性格에 대한 社會學的 研究詩論”(국문), 연세사회학 제 7 집, 연세대 사회학과, 1986, pp. 83~118.

Cho Hi-Yeon, “A Sociological Study on the Characters of Korean Capitalism: A Preliminary Study”(in Korean), *Yonsei Jour-*

nal of Sociology Vol. 9,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6, pp. 83~118.

이 논문은 최근 현대한국사회의 성격을 둘러싸고 사회과학계 내부에서 가열되어온 논쟁을 '국가독점 자본주의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간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두 이론 각각이 주목하는 사실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메타이론적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필자는 주변부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성을 불철저하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성격과 구체적인 양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사회의 계급구분문제를 중심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메타이론적 논의의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870. 李柄赫, “社會變動과 言語文化”(국문), 한국사회학 제 20 집, 한국사회학회, 1986. 겨울, pp. 117~137.

Lee Byung-Hyuk, “Social Change and Linguistic Culture”(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0,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6 Winter, pp. 117~137.

본 논문은 한국어의 구체적 모습은 보편(인간언어)과 특수(한국어)의 결합체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일제하에서 한국어가 어떠한 침식을 당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면서, 광복이후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그 변화를 규정하고, 그러한 특성과 변화가 언어문화에 미친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분단시대의 지배계급의 사회·문화적 성격은 '가부장적, 온정주의적, 관료제적 권위주의'로, 사회총체적 관점에서는 '대중문화'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필자는 대중문화론적 관점에서 분단시대의 언어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1871. 梁鍾會, “從屬的發展에 따른 社會構造의 分化와 文化的 矛盾”(국문), 한국사회학 제 20 집, 한국사회학회, 1986. 겨울, pp. 57~80.

Yang Jong-Hoe, “Structural Differentiation and Cultrural Contradiction in Dependent Development”(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0,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6 Winter, pp. 57~80.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의 급격한 경제성장, 물질적 생활의 개선에 따르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측면

에서의 변화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제성장의 성격을 밝히고, 다음에 그에 수반된 사회구조, 특히 계급구조의 변화를 검토하며 끝으로 문화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종속적 발전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공업화도 심화되어 산업구조를 비롯한 여러 측면도 근대화되었다. 그러나 종속적 발전은 노동자·농민의 희생의 댓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배계급과 소외계층간의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켰고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결과로 심화된 경제적 종속은 문화적 종속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모순되고, 왜곡된 과정은 개인의 의식의 차원에서는 통합의 문제를, 문화적 차원에서는 문화적 모순을 초래하였다.

1872. 崔載賢, “社會變動과 社會理念”(국문), 한국사회학 제 20 집, 한국사회학회, 1986 겨울, pp. 1~14.

Choe Jae-Hyeon, “Social Change and Social Ideology”(in Kore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0,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986 Winter, pp. 1~14.

사회변동과 사회이념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이념이 결코 사회변동의 유일한 결정인으로 부각되어서도 안되고 사회이념이 물질적인 토대 또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정된다는 식의 논리도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19세기 중엽 이래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편의상 시민적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의 문제, 계급의 문제, 국제교류와 종속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 위에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전략집단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80년대의 체제위기는 우선 의사표현 및 자발적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기구가 들어섬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873.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국문),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 8 권 제 3 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2, pp. 31~66.

Lee Sang-Chul, “A Preliminary Study of Social Change in Che-Ju Island”(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8 No. 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 2, pp. 31~66.

제주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민속·언어분야와 개발의 효과 측면에 치중하여 양극화된 체 변동

자체에 대한 고찰은 소홀했다. 이 글은 제주사회 변동의 성격을 자본주의적 산업화라는 수준에서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필자는 60년대 이후 제주사회의 변동을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규정하고, 그 변동의 기본성격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이자, 한국사회 내에서 제주사회가 주변사회로 종속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그 이유는 제주사회 변동이 어디까지나 산업화와 자본축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규정받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울러 제주사회변동을 한국사회요구에만 치중하여 파악한 이 글의 한계를 스스로 지적하고, 제주사회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사회자체의 역동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 Social Welfare

社會福祉

1874. 閔恩植, “障碍者 再活事業의 現況과 福祉事業” (국문), 사회복지학회지 제 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3, pp. 1~10:

Min Un-Shik, “The State of Affairs of Programs for the Handicapped and Future Policy” (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VIII,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3, pp. 1~10.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실시되어온 장애자 재활 사업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과 그 대책을 고찰하고 있다. 장애자 복지는 일반국민들의 복지정책과 구별해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없고 다만 장애자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여 일반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정부의 주택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에서 장애자들의 특수성을 감안, 어떻게 하면 장애자들도 일반국민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국민들의 장애자에 대한 의식의 개혁, 장애자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의 처우개선, 장애발생의 예방책의 수립과 과감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1975. 崔鐵和, “福祉社會를 위한 理論的 模索”(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20~1집, 서울시립대학, 1986, pp. 25~40.

Choi Chul-Hwa, “A Theoretical Research for the Welfare Society”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Vol. 20~1, Seoul City Univ., Seoul, Korea, 1986, pp. 25~40.

본 논문에서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복지사회를 위한 이론적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국민의 의식과 국가의 기능 그리고 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복지사회란 어느 계층,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국민은 누구나 응분의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 함께 문화적 이익도 아울러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혜택은 국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각성된 국민적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구에 있어서도 복지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기구건설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복잡한 기구를 합리화할 때 적정규모의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보다 유능한 엘리트층이 넓게 형성될 때 국민이 바라는 복지사회는 빨리 건설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1876. 曹興植, “고려시대의 救貧制度”(국문), 사회복지학회지 제 8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3, pp. 163~194.

Cho Hung-Shik, “Study on the Institution for Relieving the Poor in the Era of the Koryo Dynasty” (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VIII,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pp. 163~194.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구빈사업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고려시대에 있어서 구빈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특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구빈사업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公의 기관이 설치되고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천과 아울러 그 시행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제도가 갖는 전반적인 내용과 성격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려시대의 구빈제도의 변천을 고찰하고, 둘째 구빈제도의 주체를 공적 차원과 사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구빈제도의 給與對象과 그 方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給與의 종류와 量, 그리고 財源調達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1877. 김태진, “사회복지정책의 전개방향”(국문), 사회복지연구 제 15집, 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 1987, pp. 159~178.

Kim Tae-Ji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n),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5, The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Taegu Univ.,

Taegu, Korea, 1987, pp. 159~178.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 및 그에 내재하는 문제성을 파악하고 복지정책의 과제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전개방향을 사회복지보장의 전략에서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산업복지에 두고 경제성장과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2) 사회보험을 확대하여 전국민이 포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 자립·자조이념에 바탕을 둔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가족단위의 생활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1878. 李春基, “地域社會福祉의 최근의 경향”(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과학논총 제 5 권 제 2 호,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1986. 12, pp. 177~197.

Yi Choon-Ki, “The Recent Trends in Community Welfar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5 No. 2, Pusan National Univ., Pusan, Korea, Dec. 1986, pp. 177~197.

본 논문은 지역복지의 최근경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복지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는데, 첫째 단계는 隣保館과 慈善組織協會가 생겨나고 지역복지의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이고 두번째 시기는 지역사회조직의 형성 발전으로 특징지워지며 세번째 단계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와 노마리제이션(normalization)이 사회복지의 새로운 철학으로 간주되는 시기이다.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은 제도적 복지보다는 지역복지를 보다 중시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後發國家로서의 이점을 살려서 미리 잘 계획하여 복지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地方自治가 더욱 진행될 것이 요청되며 民主主義가 정착되어야 한다.

1879. 손명자, 박경규, 김복규, “近代化 과정에 있어서 福祉問題”(국문), 사회과학논총 제 4 집, 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1~20.

Son Myung-Ja, Park Kyung-Ku, Kim Bok-Kyu,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in Korea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 No. 1,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imyung Univ., Taegu, Korea, 1986, pp. 1~20.

본 논문에서는 근대화의 본질적 문제, 한국의 근대화과정, 근대화에서 복지문제의 대두와 방향, 이들을 제어하는 근대화의 부작용 및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특히 정신건강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주로 사용된 방법은 1)

토론에 의한 문제의 발견, 2) 논리적 증거에 해당 하는 의견을 기존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구하고, 3) 기타의 자료들은 정부의 간행물 및 기타 통계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1880. 申容宇, “韓國의 社會福祉 政策에 있어서의 Elite의 역할”(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집 제 18 집, 상명여자대학교, 1986, pp. 263~293.

Shin Yong-Woo, “A Elite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Collection of Theses* Vol. 18, Sangmyung Women's Univ., Seoul, Korea, 1986, pp. 263~293.

본 논문에서는 의료보험법이 입안·제정되고 개정·실시된 과정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쳤던 여러가지 요인, 그리고 결과적인 의료보험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법의 제정과 실시 과정에 Elite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정책내용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의료보험 정책이 국민의 민의와는 별 관계없이 그리고 요구에 부응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 정책의 제정과 개정, 시행 그리고 정책내용에 미치는 Elite의 영향은 심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elite model에 의한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81. 정재림, “社會保障制度的 政策的發展方案에 대한 研究”(국문), 社會福祉學研究 第 5 輯, 尙志大學 社會事業學科, 1987. 2, pp. 5~36.

Jung Jai-Lim,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n Korea”(in Korean), *The Study of Social Welfare Science* No. 5, Department of Social Work, Sangji College, Seoul, Korea, 1987. 2, pp. 5~36.

本考는 복지개념의 핵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한국의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미래의 복지사회에 대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로는 우선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이론으로서 사회보장의 의의와 범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발전과 체제분석과 특징, 각 부문별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안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의 장기목적과 기본방향을 설정,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각 부문별로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882. 李鉉承, “福祉社會保障制度 小考”(국문 및 영문 요약), 명지대 논문집 제 17 집, 명지대, 1986, pp. 181~198.

Lee Hyun-Seung, “A Study on th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System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Myongji Univ. Journal* Vol. 17, Myongji Univ., Seoul, Korea, 1986, pp. 181~198.

본 논문에서는 복지사회 건설에 따르는 사회보장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광범위한 총체적 사회개발의 범주내에서의 사회보장을 연구하며, 선진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비교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사회적 조건, 환경적 입지 등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사회보장이라 하면 ① 사회보험, ② 공적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가지로 구분전개되고 있는데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각자 정해진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제반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의 상호비중을 적절히 배합조정하여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갈 때 비로소 이상과 실제의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천적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883. 김보애, “貧困政策에 대한 社會福祉學的研究”(국문), *社會福祉學研究* 第 5 輯, 尙志大學 社會事業學科, 1987. 2, pp. 37~65.

Kim Bo-E, “A Study on the Poverty Program in Korea”(in Korean), *The Study of Social Welfare Science* No. 5, Department of Social Work, Sangji College, Seoul, Korea, 1987. 2, pp. 37~65.

本考는 사회문제의 근원인 빈곤문제를 조망함에 있어서, 국가의 빈곤퇴치대책이 정책적 차원에서 공적부조로 한정됐고 공적부조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을 전제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복지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빈곤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빈곤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개념을 정리한 후 빈곤의 현황을 사회문제 대상별로 살펴 보고 정책과 기술체계 면에서 각 대상별 빈곤퇴치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아동빈곤의 경우 절대적 아동빈곤과 상대적 아동빈곤, 즉 가정내 아동빈곤과 가정외 아동빈곤으로 나누어 전자를 시설아동, 후자는 영세아동으로 개념을 설정하여 그 실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그밖에 심신장애자 빈곤, 모자가구 빈곤, 노인 빈곤 각각에 대하여 복지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1884. 羅炳均, “社會保障의 基本原理—慈善에서 經濟的·社會的 權利로—”(국문), *社會保障研究* 第 2 卷, 韓國社會保障學會, 1986. 11, pp. 1~28.

Na Byong-Kyun, “A Study on the Basic Ideas of Social Security—from Charity to Social and Economic Rights”(in Korea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Seoul, Korea, 1986. 11, pp. 1~28.

本考는 주로 社會保障이 제공하는 保護技術의 史的展開을 고찰하는 가운데 社會保障의 基本原理를 다루고 있다. 내용의 전반부에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을 예로 들어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었던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욕구들——최저생계의 보장과 사회적 위험의 치료와 예방——에 관하여 다루고 중반부에는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빈곤층과 노동자계급의 경제생활안정을 보호하는 갖가지 보호기술에 대한 비판과 사회보험의 이념을 다루며 후반부에서는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대두한 사회보장의 두가지 기본이념 즉 社會的 미니멈의 보장과 所得의 보장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각각에 대한 비판을 시도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사회보장이 ‘全國民的 社會的 미니멈의 保障’과 ‘勞働者 階級の 實質的인 所得의 保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수행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가늠하고 있다.

1885. 李永連, “福祉政策의 本質的 規範과 方向”(국문), *社會保障研究* 第 2 卷, 韓國社會保障學會, 1986. 11, pp. 29~57.

Lee Young-Youn, “The Norms and Directions of Welfare Policy”(in Korea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Seoul, Korea, 1986. 11, pp. 29~57.

本考는 社會政策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社會狀態’로의 전환을 위한 포괄적 정책임을 전제하고 ‘보다 나은 사회상태’라는 개념이 내포한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본질적 규범을 논하고 그 형태 및 경제적 효과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평가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본질적 규범으로는 人間의 尊嚴性과 經濟的 效率, 分配的 正義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삶의 방법과 생활수단,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자기결정권, 문화적 환경 및 종교적 신앙 등과 관련하여 논하고 경제적 효율은 복지의 준거로서 효율이 갖는 가치에 초점을 두어 다루며 실천적 의미에서 복지정책의 지배적 규범인 분배적 정의는 생산요소 및 소득과 부의 배분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所得再分配政策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사회의 상황을 감안한 복지정책

의 방향을 분배적 정의의 실현으로 보고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886, 羅秉均, “契와 社會保障”(국문), 사회복지학회지 제 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3, pp. 135~162.

Na Byung-Kyun, “Gye and Social Security”(in Korean),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VIII,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3, pp. 135~162.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의 先人들이 일상적으로 당면하던 여러가지 사회적 욕구와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역사적 사실들의 분석을 통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들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내려는 노력이라고 자기의 입장을 전제하고, 1) 조선사회 후반기의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민생의 문제를 이해하고, 2) 한국의 전통사회속에서 유행한 협동관행이 結契活動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3) 사회보장의 보호기술적 관점에서 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